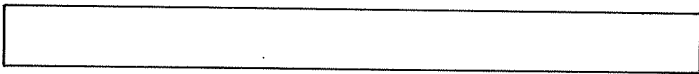


意見과 対策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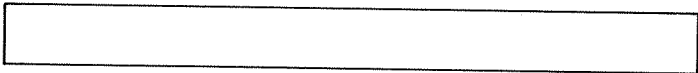
大型工事 設計에 대한 엔지니어링문제 · 建築士보조원 確保에 대한 문제를 中心으로



／참석자／ ◎ 사회 / 具 玠 會 (本會會長)

- | | |
|--|---|
| <input type="checkbox"/> 金正澈 (주·정림건축 대표) | <input type="checkbox"/> 宋鶴祚 (삼성건축 대표) |
| <input type="checkbox"/> 金大植 (김건축연구소 대표) | <input type="checkbox"/> 金琪碩 (아담건축 대표) |
| <input type="checkbox"/> 張錫雄 (아도무건축 대표) | <input type="checkbox"/> 洪淳寅 (대우건축 대표) |
| <input type="checkbox"/> 金 麟 (가전건축 대표) | <input type="checkbox"/> 金希洙 (현신건축 대표) |
| <input type="checkbox"/> 徐千植 (삼일건축 대표) | <input type="checkbox"/> 姜哲求 (주·서울건축 대표) |
| <input type="checkbox"/> 尹泰雄 (동인건축 대표) | <input type="checkbox"/> 金仁錫 (중합환경연구소 대표) |

／無順／



다음은 本誌가 特輯主題로 選定한 大型工事設計에 對한 엔지니어링문제와 建築士보조원 確保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한 懇談會 內容을 옮긴 것이다.

지난 2일 本會 會長室에서 具玠會 會長사회로 進行된 이날 간담회는 選定主題가 建築士의 權益과 직결된다 는 점에서 參席會員들의 폭넓은 意見 교환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主題가 비단 建築士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 전반내지 建築 文化 創 達이라는 觀點에서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主題라는 点에서 政策 當局의 各별한 배려가 기대되고 있다.

첫번째 주제가운데 國內 大型工事 턴키베이스 發注에 따른 設計受注문 제는 이에 關한 시행령이 지난 80년 11월에 特례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30억이상의 工事 및 그 이하의 工事 라도 特定工事는 턴키베이스에 의해 發注토록 됨으로 해서 建築士의 업 무가 위축됨은 물론 건축의 創作性 내지 藝術性이 無視되고 있는 形편이 다. 따라서 建築士의 실망이 없어짐 은 물론이고 나아가 建築文化창달이 現制度下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實情 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制度自 體의 모순점과 運用上의 탄력성부여 가 關鍵으로 남아있다.

두번째 主題인 보조원문제는 이들 에 對한 認識不足과 건축教育 및 建築士試驗制度上의 不合理가 設計 事務所의 보조원不足사태를 惹起케 왔 다고 지적돼 이의 根本的 해결 方案 의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的 현안문제점에 關한 衆智를 모아 協會次元에서 解決할 수 있는 方案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편집자〉



「턴키 베이스」自体는 좋으나 그 運用이 큰 문제 시험 합격 후 設計事務所 거쳐야 開業할 수 있도록

1] 大型工事 設計에 대한 엔지니어링 문제

□ 會長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어떤 公式의인 모임이라기 보다, 공동 운명체로서 우리모두가 当面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폭 넓은 意見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問題가운데 오늘은 우선 大型工事設計에 對한 엔지니어링 문제와 建築士보조원확 보에 대한 문제를 큰 主題로 해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主題에 연관된 사항으로 國內大型工事「턴키 베이스」發注에 따른 設計受注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김대식 「턴키베이스」에 의한 工事に 직접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턴키」自体에는 좋은점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實情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뒤따른다는 거죠. 따라서 設計가 아무리 좋아도 Cost 上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設計自体는 아무것도 아닌걸로 되더군요.

우선 큰회사와의 경쟁에서 單價上의 경쟁이 거의 不可能해요. 예를들면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등의 單價에 있어 우리가 넣은것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큰 차이가나요. 그러면 工事を 發注하는 쪽에서 비싼걸로 하겠습니까?

□ 김정철 「턴키베이스」에 관한 제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政府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제도를 만든것은 施工會社의 技術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형편상 시기적으로 이르고 따라서 「턴키베이스」에 대한 개념마저도 잘못된식된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다가는 모든 建築工事を 그런 식으로 하게 하는 방안도 나오겠다 이겁니다. 建築文化내지 藝術性을 理解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큰 문제인것 같아요.

□ 김대식 그래요. 設計者 나름대로의 作品이 될수가 없더군요. 大型會社와의 경쟁도 되지 않지만 發注處(當局)의 자세도 큰 문제입니다. 設計고 뭐고간에 우선 Low Cost 몇개를 낙찰대상으로 뽑아 놓고, 그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을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짝 것,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다음 짝것 식으로 價格이 發注의 우선 基準이 되니까 建築의 藝術性이라든가, 文化云云은 어렵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落札圈內에 들기

위해서는 낮은 價格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設計를 생각 하는 식이 되니까 나름대로의 作品이 전혀 나올수가 없게 됩니다.

□ 우리 實情에는 時機尙早 - 与件未備

□ 서천식 제값을 받고 한다면 「턴키베이스」야 말로 더 없이 좋은 방법이겠읍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로 또 「턴키」로 해서 모두 주느냐하면 결국 모두 파트별로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技術축적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市廳과 住公에서 한 것을 경험삼아 우리 建築士들이 어떤 方案을 提示해야 할 줄 압니다. 그대도 지나간다면 큰 會社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는다는 결론이죠. 당국은 당장 일하기가 편하니까 成功的인 것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단결해서 組織의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겁니다.

□ 김대식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쟁건지도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試行錯誤를 인정되고 할 때 우리의 意見을 제시해도 늦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턴키 베이스」自体가 꼭 그런것만은 아니죠. 外國에서는 오래전부터 實施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會長 지난 2월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元老建築人들과 많은 對話를 나눴으나 역시 結論을 얻지는 못했읍니다 협회次元에서 衆論을 모아 當局에 어떤 方案을 제시 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 김정철 「턴키 베이스」 자체의 장단점은 현재로서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人間과 관련된 工事 즉 創作物은 결코 「턴키 베이스」로는 안된다는 것을 認識시키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라고 봅니다.

일단 當局에서 施行한것인 이상 弛계는 철회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政策의 向方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制度는 좋으나 運用이 문제가 됩니다. 30억원 이상의 工事は 「턴키」로 하려는 意識을 막아야 합니다.

□ 김린 이런 추세로 간다면 建築士들이 모두 建設 會社에 목덜미를 잡히고 마는 형편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現實에 참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돈을 떠나서 技術開發이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김대식 設計는 주어진 條件에 따라 創作이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순수한 의미의 創作은 現實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制度의 시행 방법을 좀더 탄력성있게 運用될 수 있도록 協會次元에서 主務官署와 조정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줄 압니다.

□ 創作性 무시되는 「턴키베이스」

□김정철 당국자도 創作物에는 이의 適用이 어렵다는 것을 認定하더군요. 다만 「프랜트」인 경우는 「턴키 베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外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창작물과 「프랜트」가 분리돼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국도 알고 있으나 執行部署에서는 이런저런 거 따지기 귀찮고 하니까 그냥 편한대로 시행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制度自体보다는 一次的으로 運用 方法을 건의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송학조 區分이 돼서 部分的으로 結論을 내려 적극적으로 當局과 얘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會長 여러분들의 意見을 集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建築士의 업무위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 가운데 現 設計事務所의 엔지니어링 受注태세 문제인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김정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會長 네, 우리가 영세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파트를 못두는게 아닙니까? 設計사무소의 大型화가 先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석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허다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全体建築인들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독단적인 見解인지는 몰라도 建築士들이 엔지니어링까지 꼭해야 합니까?

□會長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 意見을 교환해서 어떤 共通分母를 찾자는 것이죠. 어떤 길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송학조 協會次元에서 対策마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次元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강철구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방법모색이 필요합니다.

□김인석 業務限界만을 협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規制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또 큰일하시는 분들이 잘해주셔야 하겠죠.

□김린 맞습니다, 일을 빼앗기다 보면 한이없죠.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의 변태를 막아야 되고요.

□會長 制度的인 장치도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단결할 때 우리의 權益이 자연히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턴키베이스」문제 그리고 엔지니어링 문제는 끝을 내고, 다음 主題로 話題를 바꾸겠습니다.

② 建築士 補助員 확보에 대한 문제

□會長 보조원 확보문제는 未久에 다칠 큰 문제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고심해본 경험 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말씀 좀 나누시죠.

□김희수 네, 보조원 확보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제 경우에는 한꺼번에 4명이 나간적이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한마디로 키워놓으면 興件이 좋은 建設會社로 빠져버립니다. 장학금지급이라든가 그밖에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검토돼야 할 겁니다.

□김정철 따지자면 教育制度부터 얘기가 되어겠지만..., 우리 會社에는 약 160여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 일할만하면 가버리고 말아요. 일년이면 몇십명씩 도망갑니다.

특히 우리 會社는 每年 8개 대학에 公文을 보내서 資質이 좋은 학생들을 實習生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약 40명씩을 실습시킵니다. 그들을 우리 會社에 흡수해 놓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建築이라는 것, 또 建築士가 되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정도 심어주는 데도 必要하다고 생각해서죠, 그들에게 어떤 使命感을 심어주는 作業이 중요 합니다. 그런것을 다른 회사에서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졸업생들이 建設회사로만 가는 것이 現實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죠.

□장석웅 네, 보조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좋지 않아요. 명칭도 “보조사”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고요. 건축사 보라는 공식명칭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길고요.

□ 장기적 안목으로 政策배려 시급

□송학조 우리 사무소는 번두리여서 그런지 보조사 구하기도 꽤 힘들어요. 資質을 갖춘 사람 잡기가 어렵고, 더구나 設計事務所에는 큰 建設會社에 당장 취직이 안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잠깐있다가 간다는 생각이 틀에 박혔어요. 그들에게 特惠를 주는 制度가 마련돼야 합니다.

□김정철 認識의 幅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도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관 계요로에 있는 建築人들도 우리 協會 會員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말입니다.

□會長 開業하지 않은 建築人들도 準會員으로써 迎入하는 문제는 이미 研究중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특히 넓



한다는 뜻에서도...

□김대식 特惠라고 까지야 할것 없지만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方法은 꼭 必要합니다. 하다못해 医料保險혜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장석웅 根本적으로 그들의 思考方式을 새롭게해서 設計事務所에 오는 것을 하나의 영광으로 여기게 하려면, 우리도 최소한의 投資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輩出源인 學校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자주 만나고 또 教育의 방향을 유도하는 方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것은 어느 개인보다는 協會에서 事業性을 띄고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겁니다. 또 주택이라든가 기본적인 디자인展에는 학생들을 참여케 해서 입상자에게만 얼마라도 장학금을 지급케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設計事務所가 당장은 建設會社보다 興件이 좋지는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建築家가 되려면 이곳을 거쳐야 한다는 긍지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런 事業은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試驗制度 개선해서 實技 비중높혀야

□김린 이런 方法도 可能할 것 같아요. 「인턴」 制度 같은 것 말입니다. 일정한 期間동안 設計事務所에 근무해야 만이 建築士 試驗에 응시할 수 있는 資格을 부여하는... 惠擇과 制約이 동시에 있어야 할겁니다. 그밖에 各種 포상 制度를 마련하는 등 말입니다. 「인턴」 制度는 시험제도를 개방하되 실기 부문을 強化해서 꼭 設計事務所에서 일정기간 익혀야 가능토록 하기 위한 方法이죠.

□김희수 「인턴」보다는 「레지던트」 코스를 뒤서 試驗合格 후 2~3년간 設計事務所에 근무해야 만이 開業할수 있도록 하는 方法도 좋겠습니다.

□會長 여러분들이 보조사문제로 어려움을 만이 있는 것을 자세하게 「리포트」로 作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會誌에도 게재하고요.

한마디로 產學協同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教育은 教育대로 法은 法대로 또 現實은 現實대로 제각기 돌아가

니까 많은 모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없는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工高나 工專 나온 친구들이 大學나온 현장 감독을 앞에 두고 監理하는 현상이 만연 될 겁니다. 지금도 工高나 工專나온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은 設計事務所에 안와요, 大學출신은 물론이고요. 그러니 現場에서 이런 「헤프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현상이 곧 옵니다. 이런것은 政策的인 次元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죠.

□ 김희수 大學卒業生들이 設計事務所에 오도록하기 위해서는 역시 試驗을 開放하고 그 다음에 設計事務所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 강구가 돼야 합니다.

□장석웅 시험제도도 강화하고 특히 설계시험을 강화해서 實技를 익히지 않고는 안 되게 해야 합니다.

□김희수 制度的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特典을 베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편이 닿지는 않겠지만 外國여행을 시키는 방안등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서천식 가까운 外國여행은 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철 外國여행 같은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야 어렵겠죠. 그러나 컨테스트 같은 것을 열어 당선자에게 단체에서 外國여행을 시키는 방안등이 고려되어야 할겁니다. 우선 그들에게 대우를 해줘야하겠지요.

□會長 네, 여러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意見을 나눈 大型工事 턴키베이스 문제나 보조원 문제등은 우리가 当面한 우리의 문제고 더구나 우리의 存立내지 生存과도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方法으로라도 그 対策이 강구돼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 協會次元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政策에 반영해서 우리의 權益옹호를 위해 일을 해 보려고 오랜시간 여러분들과 對話를 가졌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어떤 結論보다는 여러분의 中心意見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으며 이점을 깊이 파악해서 협회가 추진해 나가는 모든 事業에 반영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